



DIOCESE OF SAN BERNARDINO

OFFICE OF THE BISHOP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우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에페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그를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약자들은 나이든 사람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등이 있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기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생명에 관하여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쁘게도, 연방대법원에서 Roe v. Wade 판례를 뒤집어 낙태권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는 연방법 차원에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주(State)의 정치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낙태의 권리를 무조건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헌법으로 낙태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Prop. 1 이라고 불리며 11 월 8 일 투표에 부쳐질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Prop. 1 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끔찍한 낙태를 우리 주에서 계속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세금을 써가며 온 미국에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을 캘리포니아로 불러모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Prop. 1 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위배됩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화를 부채질하는 법안입니다.

투표가 가능한 분들은 꼭 투표를 하시고, 다른 사정이 있는 분들은 주위에 투표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의 투표로 삶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몇 주동안 신앙인으로서 Prop. 1 의 실체를 알리는데 주력합시다. 단, 어디까지나 시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역시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쉽지 않은 여정을 위해, 우리 교구의 수호성인이자 산모 속에 있는 아기들의 수호성인인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안에

교구장 로하스 알베르도

1201 EAST HIGHLAND AVENUE, SAN BERNARDINO, CA 92404

◆ TELEPHONE: (909) 475-5113 ◆ FAX: (909) 475-5109 ◆ EMAIL: BPOFFICE@SBDIOCESE.ORG